

[사람+]

소년농부 한태웅 군, “하느님이 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



가을걷이가 끝난 11월입니다. 농부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양이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늘에 순종하고, 땅을 일구고, 생명을 돌보고, 먹이며, 보살피죠. 소비에 익숙한 도시의 신앙인에게에는 농부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다큐멘터리와 예능에서 ‘소년농부’로 화제를 모은 한태웅 군(17)을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만나고 왔습니다. 아직 돌봄이 필요할 듯한 청소년이지만, 온갖 생명을 돌보는 9년 차 농부로서 책임감이 여느 어른 못지않습니다. 그런 그도 ‘요한 사도’라는 세례명의 신자라는군요. 도농한마당잔치 25주년을 맞아 작은 그리스도인의 인터뷰(10월 6일자 가톨릭평화신문) 일부를 옮깁니다.

발행·정리 서동경 안나 | 홍보위원회

#1. 나는 농부다

“올해 소작을 늘려서 잘된 데도 있는데, 태풍에 쓰러진 곳도 있어 걱정이예요…. 농사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모심어 놓은 눈에 물이 철철 들어가는 그 소리가 제일 좋아요.”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에서 조부모와 논 4,000평, 밭 3,000평을 일구고 있는 한태웅(수원교구 미리내본당)군. 태웅군이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태웅농장에는 소 16마리와 염소 40마리, 닭 30마리가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과 논밭에 들렀다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안 졸릴 수가 없다.

#2. 농부의 꿈

태웅군의 꿈은 ‘대농, 농민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 농촌 가수가 되는 것’. 농부들에게 노래가 힘이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봐왔다. 한편으로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베푸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할아버지(한영운 베드로, 74)·할머니(이영순 마리아, 67)에게 농부의 삶을 물려받으면서 신앙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벼를 베고 나면 방아를 찧습니다. 우리가 먹을 건 남겨놔야 하는데, 다 나눠주셔서 저희도 지금 사 먹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농사는 하늘이 해주는 것”이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줬다. 농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올곧게 이겨내는 마음도 심어줬다. 농업인의 자부심이다.

#3. 열심 사는 거!

“어디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찮게 봅니다. 제가 농사짓는 모습을 유튜브나 방송으로 보시면서 농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쌀이 많아 버리지만,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쌀값은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가 농부의 길을 걷는 데 가족의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만큼 농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벼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태풍이 와서 곳곳이 서 있던 벼들이 다 누워 썩어 버렸다.

“벼는 3일만 쓰러져 있어도 싹이 올라오거든요. 쓰러지면 벼를 밀 때 다 못 걷어 올려요. 벼가 밟히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태웅군은 “성당에 안 다녔다면 지금처럼 안 됐을 것”이라며 “매날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했다. 요즘 성당에 가서 하는 기도는 “연로한 어르신들 농사일 돕게 콤파인 좀 사게 해달라”는 것이란다.

그의 방문에는 ‘열심 사는 거!’가 써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감사 일기가 올려져 있었다.

이지혜 보나 기자 |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평화신문
기사 전문 QR



가톨릭평화방송
뉴스QR



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QR